

寒山詩의 儒·道家적 양상 고찰*

정원호**

【목 차】

1. 들어가며
2. 儒家적 양상
 - 1) 儒家에 대한 긍정적 性向
 - 2) 儒家에 대한 비판적 性向
3. 道家적 양상
 - 1) 道家에 대한 긍정적 性向
 - 2) 道家에 대한 비판적 性向
4. 나오며

【초록】

본고는 ‘寒山’이라고 알려진 인물의 詩作集인 『寒山詩』를 고찰한 글이다. 천태산에서 國淸寺 승려인 豐干, 拾得 등과 교유하면서 창작활동을 한 그의 시집에는 불교적 색채가 강렬하게 드러나 있다. 그러나 사상적 이념에는 젊은 시절 받았던 儒家적 훈도의 영향과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른 道家적 기풍이 함께 어우러져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본고는 『寒山詩』의 전체적 면모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 이외에 유가와 도가의 사상이 한산의 시에 끼친 영향을 고찰한 글이다.

유가적 경향을 살펴보면, 시에서 『論語』의 글귀 인용 및 그 내용의 주제화,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인 『書經』의 민본사상, 유교 윤리의 핵심가치인 『孝經』의 ‘孝’, 『禮記』 등을 언급하며 긍정적 성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평생을 유교경전을 탐독하면서도 ‘백정’신세를 면치 못하는 선비, 추위와 굶주림에서 벗어나지 못한 선비, 유가의 경전은 박통하면서도 농기구 사용도 하지 못하여 자신 및 집안경제를 빈궁에 빠뜨리는 유가의 인물들을 내세워 허울뿐인 유가적 경향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기도 하였다.

도가적 경향을 살펴보면, 『莊子』 「逍遙遊」를 통한 도가적 가치관, 자연에서 ‘仙書’ 혹은 黃帝

* 이 논문은 2017년도 동의과학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동의과학대학교 관광중국어전공 조교수 (whjung@dit.ac.kr)

와 老子의 글을 중얼거리는 화자의 모습, 『莊子』『應帝王』의 혼돈의 일화, 天地를 棺으로 삼고 죽어서는 곤충의 먹이가 되겠다는 莊子의 이야기, 손에 늘 老子의 『道德經』을 들고 다닌다는 화자의 모습 등을 통해 긍정적 성향을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불로장생의 신선이 되려는 환상에 빠져 심신을 망쳐버리는 인간들의 모습, 도가의 신선술을 신봉하던 漢武帝와 秦始皇의 무덤에 무성한 잡초 등의 이야기를 통해 도가적 환상에 대한 비판적 성향을 나타내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불자의 모습이 강하게 각인된 한산의 시에서 과거에 걸어왔던 유가의 경향과 시대적 조류인 도가의 양상도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키워드】 寒山, 儒家, 道家, 『論語』, 『莊子』, 神仙, 不老長生

1. 들어가며

『寒山詩』의 작자는 스스로를 ‘寒山’, 혹은 ‘寒山子’라고 칭하며 중국 天台山의 寒巖에 장기간 은거하며 살았다.¹⁾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여러 기록과 자료집을 토대로 행한 연구에 의하면 한산의 생졸연대는 680년에서 840년 사이로 추정된다.²⁾

청년 시기의 한산은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며,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유가의 전통 교육을 받으며 作詩, 말타기, 활쏘기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두루 배움을 거쳤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당시 전통적인 벼슬길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러 차례 과거에 응시하여 조정의 진출을 꾀하였으나 좌절당하고 말았다.³⁾

30세 즈음에 한산은 天台山으로 들어와 거주하면서 國淸寺 승려인 豐干, 拾得 등과 교유하면서 시를 짓고 살았다. 그가 창작한 『寒山詩』는 모두 천태산에서 지어진 것이다.⁴⁾ 이 시기는 唐나라 肅宗 무렵에서 唐 憲宗년간으로 中唐시기에 해당된다.⁵⁾ 그가 걸어온 일련의 과정

1) 項楚, 『寒山詩注』, 北京:中華書局, 2000, p.1.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中國學』, 제52집, 2015, p.123에도 관련 내용이 실려 있음.

2) 寒山の 生年은 680년에서 750년, 卒年은 780년에서 840년으로 생졸연대가 70-80년 정도 차이가 난다. 崔小敬, 『寒山及其詩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2004, p.14 참조.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3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음.

3) “처음에는 글재주와 칼솜씨 갖춘 객이 되었고, 다음에는 어진 임금 만났다네. 동으론 문필로 지켰으나 주목받지 못하고, 서론 무예로 정벌에 나섰으나 공훈을 세우지 못했네. 글을 배움에는 무예를 겸하였고, 무예를 배움에는 글을 겸하였다네.(一爲書劍客, 二遇聖明君. 東守文不賞, 西征武不勳. 學文兼學武, 學武兼學文.)” 『寒山詩-007』, 何善蒙, 『隱逸詩人-寒山傳』, 2006, pp.1-2. 참조. 選詩 및 시 번역은 필자 담당.

“글씨와 글 모두 못하지 않았지만, 이 몸을 싫어해 벼슬자리 못 얻었네.……반드시 하늘의 명과 관련 있으리니, 금년에 다시 시험 보리라.(書判全非弱, 嫌身不得官.……必也關天命, 今年更試看.)” 『寒山詩-113』 이 시의 번역은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3에 실려 있음.

4) 陳耀東, 『寒山詩集板本研究』, 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p.1.

5) 孫昌武, 『禪思與詩情』, 北京:中華書局, 1997, p.239 참조.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3. 참조.

을 살펴보면 寒山의 사상은 儒家에서 道家로 道家에서 佛家로 넘어갔다고 여겨진다.⁶⁾ 유가와 도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당시 현실에 입각한 유가 사상에서 한계와 좌절을 느낄 때, 많은 이들은 현실을 떠나 무위자연을 추구하는 도가의 사상세계로 접근하였다. 한산 역시 이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때 산 중의 깊은 곳에 은거하면서 행한 승려들과의 교류가 그에게 불교의 세계로 귀의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 준 것 같다.⁷⁾ 그는 자신의 시의 序詩에 해당하는 시편에서 자신의 詩를 읽는 독자들에게 “佛法에 귀의하여 眞性を 받으라. 오늘날 부처의 몸 받기를, 律令을 받드는 것처럼 신속히 하라.”⁸⁾라고 언급하고 있다. 그 스스로 자신은 佛法에 귀의한 사람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그가 남긴 삼백여 수의 시를 살펴보면⁹⁾ 곳곳에서 ‘부처佛’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며,¹⁰⁾ 이외에도 “지옥,¹¹⁾ 보살, 나찰, 죄업, 인과, 윤회, 해탈, 보리, 번뇌” 등의 佛法에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발견할 수 있다.

한산시의 강렬한 불교적 색채 때문에 후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를 득도하여 성불한 불자의 神性を 지니고 있다고 여겼으며,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불교문화에까지도 뚜렷한 영향을 끼쳤다.¹²⁾

필자는 앞서 주석에서 밝혔듯이 이전에 한산시의 불교와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한산의 시가 비록 불교적 성향이 강하기는 하지만 유가와 도가의 성향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천태산으로 은거하여 불문에 본격적으로 입문하기 전에 거쳤던 유가와 도가에 대한 경향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한산시의 전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한산시의 불가적 성향 이외에 유가와 도가에 대한 한산의 내면적 양상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서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연구단계로는 먼저 유가에 대한 긍정과 비판적 성향을 살피고 다음으로 도가에 대한 긍정과 비판적 성향을 고찰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한산의 시적 세계 내면에 자리하고 있는 유불도 사상에 대한 고찰이 보다 잘 파악되어 질 것으로 여겨진다.

본고의 寒山詩 原文은 이전에 발표한 필자의 한산시 줄고와 마찬가지로 四庫全書 全唐詩本을 저본으로 하였다. 그리고 寒山詩 전체가 無題詩이므로 논지 전개의 편의상 四庫全書 全唐詩本 卷806에 실려있는 寒山詩 수록 순서에 따라 번호를 매겨서 詩를 구분지었음을 밝혀둔다.¹³⁾

6) 陳耀東, 『寒山詩集板本研究』, p.1.

7)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p.123-124. 참조.

8) 『寒山詩-001』

9) 한산은 자신의 시 작품에서 자신이 지은 시의 숫자를 600首라고 하였는데, 현존하는 시는 삼백여 수이며, 판본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인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p.123-124. 참조.

10) 한산의 전체 시에서 ‘佛’字는 모두 28회 나타남.

11) 한산의 전체 시에서 ‘地獄’이란 용어는 모두 9회 나타남.

12) 보다 자세한 설명은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4. 참조.

13) 이 세 줄 내용에 대한 언급은 이전 줄고인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5에 언급한 내용과 같음을 밝히는 바이다.

2. 儒家적 양상

儒學은 중국고대로부터 집안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적 사상이었다. 魏晉南北朝 시기에 일시적 쇠락의 기운이 있었지만, 隋文帝의 유학 중시 풍토를 거쳐 唐代에 와서 더욱 중시되어 孔穎達의 『五經正義』는 唐代 과거시험의 근거 자료가 되었다.¹⁴⁾ 중국의 전통사회에서 선비들이 받는 기초교육은 대부분 유가경전의 교육이며, 앞서 언급하였듯이¹⁵⁾ 과거에 참여하기 위한 한산 역시 예외일 수는 없었다.¹⁶⁾

궁극적으로는 불교사상으로 기울었다고 하더라도 청년시절까지 받아들인 유가적 훈도는 그의 시에 영향을 끼쳤음에 틀림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의 시에 드러난 유가적 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분석은 유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의 성향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의 성향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

1) 儒家에 대한 긍정적 性向

不須攻人惡, 무릇 타인의 잘못은 책망하지 않으며,
何用伐己善. 자신의 선행은 자랑할 필요 없으리라.
行之則可行, 행할 것은 행하면 되고,
卷之則可卷. 거둘 것은 거두면 되리라.
祿厚憂責大, 녹봉이 두터우면 책무가 큼을 걱정하고,
言深慮交淺. 말이 심하면 교제가 얕어질까 근심하라.
聞茲若念茲, 이 말을 듣고 이것을 유념한다면,
小兒當自見. 어린애라도 마땅히 절로 깨우치리라.¹⁷⁾

유가적 성향이 뚜렷해 보이는 시편으로 특히 『論語』에서 유래한 구절이 많이 보인다. 첫 구절의 “攻人惡”은 『論語·顏淵』의 “자신의 악한 면을 책하고(攻其惡)”¹⁸⁾이라는 내용에 비호한 것으로 보인다. 제2구는 전체 내용이 『論語·公冶長』의 “자신의 잘하는 점을 자랑하지 않으며 공로를 과시하지 않는다.”¹⁹⁾에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제3구와 4구는 『論語·述而』의 “자신을 써주면 道를 행하고 써주지 않으면 은둔한다.”²⁰⁾과 『論語·衛靈公』의 “나라에 道가 있으

14) 蕭華榮, 『中國詩學思想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p.101. 참조.

15) 註3)에 한산이 과거에 응시한 내용이 시에 나타나 있음.

16) 歐陽慧娟, 『寒山詩歌研究』, 湖南大學碩士論文, 2007, p.23. 참조.

17) 『寒山詩-103』.

18) “일을 먼저하고 이득을 뒤로 함이 덕을 높이는 것 아니겠는가? 자신의 악한 면을 책망하고 남의 악한 면을 책망하지 않는 것이 사특함을 다스리는 것 아니겠는가?(先事後得, 非崇德與? 攻其惡, 無攻人之惡, 非脩慝與?)” 『論語·顏淵』.

19) 顏淵과 子路가 孔子를 모시고 있었을 때, 공자가 각자 자신들의 뜻을 말해보라고 하였을 때 안연이 말한 내용이다. 顏淵曰 “자신의 잘하는 점을 자랑하지 않으며 공로를 과시함이 없고자 합니다.(願無伐善, 無施勞)” 『論語·公冶長』.

20) 공자가 안연에게 말한 내용이다. 子謂顏淵曰, “자신을 써주면 道를 행하고 써주지 않으면 은둔해

면 벼슬살이를 하고 나라에 道가 없으면 자신을 거두어 감추어 둔다.”²¹⁾라는 두 내용과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惡業을 제거하고 佛法에 귀의하여 부처의 몸을 받들기를 주창하는 한산의 농후한 불교적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²²⁾

이는 젊은 시절 입신양명을 위한 유가의 공부를 하며 과거 시험에 도전하기도 하였으나, 세상이 본인의 뜻처럼 되지 않아 벼슬살이에 대한 미련을 버렸다는²³⁾ 한산의 과거 경력이 그대로 묻어나있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有樂且須樂, 즐거운 일 있으면 모름지기 즐겨야 하리.
時哉不可失, 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네.
雖云一百年, 비록 일 백년을 산다고 하지만,
豈滿三萬日, 어찌 일수로 삼 만일을 채우리오.
寄世是須臾, 세상에 기대어 살기 잠깐이거늘,
論錢莫啾啾, 돈을 따져서 재잘거린들 무엇하리오.
孝經末後章, 『孝經』 마지막 「喪親章」에,
委曲陳情畢, 인정을 자세히 펼쳐 놓았느니.²⁴⁾

길지 않은 인간의 삶을 헛된 가치에 기대어 놓치지 말라는 교훈적인 내용이 담겨있는 시편이다. 제2구는 『書經』에 나오는 말이다.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 폭군인 紂王을 멸하고자 할 때 하늘이 준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²⁵⁾ 시의 마지막 두 구에 담겨있는 『孝經』 「喪親章」은 유교 윤리의 핵심적 가치인 ‘孝’에 관해 부모 사후의 장례와 제사를 포함한 부모에 대한 효심을 다루는 내용이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하면서 유교의 경전을 시편 말미에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 점이 出家學에 전념하며 불교의 계율을 엄격히 지킬 것을 주창하던 여타 한산시와는 다른 색채를 띠고 있다.²⁶⁾ 이는 한산이 불교적 가치를 중요하게 내세우면서도 유교적 성향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버리는 이러한 것을 오직 나와 너만이 가지고 있다.(用之則行, 舍之則藏, 唯我與爾有是夫!) 『論語·述而』.

21) 공자가 거백옥에게 말한 내용이다. “군자로다, 거백옥이여! 나라에 道가 있으면 벼슬살이를 하고 나라에 道가 없으면 자신을 거두어 감추어 둔다.(君子哉 蘧伯玉! 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論語·衛靈公』.

22) “……악한 업을 몰아내어 없애고, 불법에 귀의하여 진성을 받으라. 오늘날 부처의 몸 받기를 律令을 만드는 것처럼 신속히 하라.(驅遣除惡業, 歸依受眞性. 今日得佛身, 急急如律令.)” 『寒山詩-001』: 이 시와 번역은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4에도 소개되었음.

23) 『寒山詩-005』, 『寒山詩-007』, 『寒山詩-113』 등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4에 소개되어 있음.

24) 『寒山詩-146』.

25) “하늘이 백성을 가엾게 여기시어 백성들의 바램을 하늘이 반드시 따르고자 하시니, 너희들은 나 한 사람을 보필하여 길이 사해를 맑게 하라. 때를 잃어버려서는 안되리라. (天矜于民, 民之所欲, 天必從之, 爾尙弼予一人, 永清四海. 時哉, 弗可失.)” 『書經·泰誓上』.

26) 『寒山詩-247』, 『寒山詩-304』 등에 관련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他賢君卽受, 타인이 어질면 그대 곧 수용하고,
 不賢君莫與. 어질지 않거든 그대 함께 하지 말게.
 君賢他見容, 그대가 어질면 타인은 수용할 것이며,
 不賢他亦拒. 어질지 않으면 타인은 또한 거절하리라.
 嘉善矜不能, 선한 이를 좋아하고 무능한 이를 가엾게 여기면,
 仁徒方得所. 어진 이들 비로소 설 자리를 얻으리라.
 勸逐子張言, 子張의 말 따르기를 권하노니,
 拋卻卜商語. 卜商의 말은 물리쳐버리게.²⁷⁾

시적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유가적 색채가 농후하다. 길지 않은 시편 속에 전반부 네 구에 걸쳐 매번 ‘賢’자를 반복하고 있으며, 이를 ‘不賢’ 두 글자와 대비시켜 이분법으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論語』에서는 특히 ‘賢’자와 관련된 문장이 많은데,²⁸⁾ 이 시편은 그 가운데에서도 『論語·子張』편에서 子夏의 門人이 子張과 ‘벗과의 사귄(問交)’에 대해 주고받는 내용이 그 주제를 이루고 있다. 원문에서 子夏는 사람의 됄됨이를 보고 사귄 것을 권하고, 子張은 훌륭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도 포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子張은 자신이 어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었는데,²⁹⁾ 이 시의 전체 내용이 『論語』의 이 부분을 詩化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이처럼 佛者로 전환한 한산이지만 불교에 입문하기 전에 수양을 쌓았던 유가의 바탕이 그의 내면에 여전히 짙게 깔려있음을 이 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死生元有命, 죽고 사는 것은 원래 주어진 命이 있으며,
 富貴本由天. 부귀는 본래 하늘에 달려 있는 것이라네.
 此是古人語, 이는 옛 사람 전하는 말이지,
 吾今非謬傳. 내가 지금 잘못 전하는 것 아니라네.
 聰明好短命, 총명한 자는 흔히 명이 짧으며,
 癡騷却長年. 어리석은 자는 도리어 장수한다네.
 鈍物豐財寶, 우둔한 자는 재물 풍부하고,
 醒醒漢無錢. 깨진 이는 돈이 없다네.³⁰⁾

시편 도입부 두 구절에 『論語·顏淵』편의 “생사에는 하늘의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 있다”라는 내용을 끌어와 전개하고 있다.³¹⁾ 즉 이 내용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이라는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독자에게 언어의 무게감을 실어주기 위한 도구로 『論語』라는 경전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한산이 불교적 가르침을 궁극적으로 사용하

27) 『寒山詩-149』.

28) 『論語』전체에 걸쳐 ‘賢’자가 모두 25회 등장한다.

29) 子夏之門人問交於子張. 子張曰, “子夏云何?” 對曰, “子夏曰, ‘可者與之, 其不可者拒之.’” 子張曰, “異乎吾所聞, 君子尊賢而容衆, 嘉善而矜不能. 我之大賢與, 於人何所不容? 我之不賢與, 人將拒我, 如之何其拒人也?” 『論語·子張』.

30) 『寒山詩-224』.

31) “생사에는 하늘의 명이 있고, 부귀는 하늘에 달려있다.(死生有命, 富貴在天)” 『論語·顏淵』.

면서도 한편으로는 유가적 자산도 함께 중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시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편의 후반부에는 총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 우둔한 자와 깨친 자라는 대구법의 구조로 자신의 견해를 강조하고 있다. 수명이냐 재물보다는 ‘道를 깨침’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로 유가적 방편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國以人爲本, 나라가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 것은,
猶如樹因地. 나무가 땅을 의지하는 것과 같다네.
地厚樹扶疎, 땅이 두터우면 나무가 우거지고,
地薄樹樵悴. 땅이 얇으면 나무가 시든다네.
不得露其根, 그 뿌리 드러내지 말게나,
枝枯子先墜. 가지가 마르면 열매 먼저 떨어진다네.
決陂以取魚, 방죽 터서 고기 잡는 것은,
是取一期利. 한 때의 이로운만 취하는 것이라네.³²⁾

첫 구절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말은 유교 경전인 『書經』에 나오는 내용으로,³³⁾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을 이룬다. 『孟子』에는 “백성이 가장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군주는 가볍다.”³⁴⁾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하는 민본사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구절이 있다. 이어지는 시편의 내용도 ‘땅’과 ‘뿌리’를 ‘백성’으로, ‘나무’와 ‘열매’를 ‘나라’로 비유하여 근본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다. 시상의 전개가 전편에 걸쳐서 불교적 속성보다는 유가적 경향이 짙게 깔려있다. 한산의 여느 시편에 비해 유가적 속성이 특히 강하게 다가온다.

三五癡後生, 몇몇 어리석은 젊은이들,
作事不真實. 하는 일이 진실되지 못하다네.
未讀十卷書, 열 권의 책도 읽지 않고서,
強把雌黃筆. 함부로 자황붓을 잡는다네.
將他儒行篇, 저 유가의 「儒行篇」을,
喚作賊盜律. 도적을 징계하는 법률이라 부른다네.
脫體似蟬蟲, 껍질을 벗고 나면 빈대쫄에 불과하여,
齧破他書帙. 다른 서적들을 갉아먹는다네.³⁵⁾

학문의 깊이도 쌓지 못한 젊은이들이 많은 독서를 통해 수양을 쌓기보다 성급한 글쓰기에 몰두하여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 화자는 우려스런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儒家 儒生들의 행실에 대해 기록해 놓은 『禮記』의 「儒行篇」에 대해 ‘도적을 징계하는 법률’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책을 갉아먹는 ‘빈대쫄’에 불과하다는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는 화자 스스로가 불가의 수행에만 몰두한 것이 아니라 여느 다른 분야의 서

32) 「寒山詩-225」.

33) “백성은 가까이 할 것이나 하대하여서는 안 된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근본이 건고해야 나라가 편안하다.(民可近, 不可下. 民惟邦本, 本固邦寧.)” 『書經·五子之歌』.

34) 孟子曰 “民爲貴, 社稷次之, 君爲輕.” 『孟子·盡心章句下』.

35) 「寒山詩-230」.

적도 두루 읽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또한 ‘禮’에 관한 학설을 모아놓은 『禮記』에 대해 이러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평소 화자의 유가 경전에 대한 심도깊은 독서량을 반영하는 사례라 할 수 있겠다.

白雲高嵯峨, 흰 구름 험준한 산에 높이 걸려있고,
.....
此處聞漁夫, 이곳으로 들려오는 어부의 소리,
時時鼓棹歌. 때때로 노 두드리며 노래를 부른다네.
聲聲不可聽, 노랫소리 차마 듣지 못하니,
令我愁思多. 나를 깊은 시름에 잠기게 한다네.
誰謂雀無角, 누가 참새에 뿔이 없다고 하는가,
其如穿屋何. (없다면) 어떻게 저 지붕을 뚫었겠는가.³⁶⁾

화자의 귓전에 들려오는 뱃사공들의 노랫소리에 수심이 실려 온다. 이는 삶의 근심이 없이 이러한 노래가락을 실어온다면, 이는 마치 참새가 머리 뿔도 없이 지붕을 뚫는 행위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이다. 시의 말미 두 구절은 『詩經』에 나오는 구절과 거의 유사하다. 마지막 구절의 글자만 살짝 바꾸었을 뿐이다.³⁷⁾ 전체적인 시상이 불교적 경향이 강하게 느껴지는 한산의 시에서 보기 힘든 내용이다. 현실적인 서민들의 삶의 고통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비애를 한산 역시 차마 외면하지 못하고 이를 유가 경전 속의 구절로 그들과 고통을 공유하려고 하는 양상을 엿볼 수 있다.

2) 儒家에 대한 비판적 性向

徒勞說三史, 헛되이 三史를 이야기 하고,
浪自看五經. 부질없이 五經을 읽는다네.
泊老檢黃籍, 늙그막에 호적을 살펴보아도,
依前注白丁. 여전히 백정으로 되어 있다네.
.....
不及河邊樹, 강가에 나무만도 미치지 못하니,
年年一度青. 해마다 한 번씩은 푸르러 지는 것을.³⁸⁾

‘三史’는 중국의 역사서를 일컫고,³⁹⁾ ‘五經’은 유가의 다섯 가지 경서를 가리킨다.⁴⁰⁾ 자신의 신분이 ‘백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면해보려고 중국의 역사서적과 유가의 대표적인 다섯 경서를 한평생 부지런히 탐독해 본다. 그러나 말년에 이르러도 자신은 여전히 평민계급을 면

36) 『寒山詩-030』.

37) “誰謂雀無角, 何以穿我屋……” 『召南·行露』.

38) 『寒山詩-080』.

39) 『史記』, 『漢書』, 『後漢書』를 가리킴.

40) 『詩經』, 『書經』, 『周易』, 『禮記』, 『春秋』를 가리킴.

치 못한다. 입신양명에 따른 신분상승을 통해 현재의 불우함을 극복하려 한평생 애쓰미 해마다 한 번씩은 푸르려 지는 강가의 나무만도 못하다는 비유이다. 이는 신분계급의 사회질서 속에서 이루지도 못할 꿈을 향해 나아가고 가고 있는 수많은 평민들에 대한 연민을 나타내면서도 한편으로는 유가의 서적을 통해 수양하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비판적 시각이 잘 드러나 있는 시편이다.

躑躑諸貧士, 불우한 많은 가난한 선비들,
飢寒成至極. 춥고 굶주림이 극한에 다다랐네.
閑居好作詩, 한가로울 때 시 짓기 좋아하여,
札札用心力. 뽕뽕대며 심력을 기울였다네.
賤人言孰采, 천한 사람의 말 누가 들어주리오,
勸君休歎息. 그대 탄식하지 말기를 권하노라.
題安餽餅上, 떡에다 글씨 곱게 새겨 넣어서,
乞狗也不喫. 개에게 던져주어도 먹지 않으리라.⁴¹⁾

과거 급제에 뜻을 이루지 못하여 좌절한 선비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다. 평소에는 선비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한가로이 作詩를 취미삼아 수작하던 이들이 과거시험에 임박하여서는 심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계속되는 낙방에 집안경제도 기울어 춥고 배고픔이 극에 다다를 정도가 된다. 화자는 그들에게 반상의 계급에 오르지 못한 이들의 말 따위는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으니 탄식할 필요가 없다고 일러준다. 심지어는 길에서 어슬렁거리는 개조차도 떡에도 글 새겨 던져주면 먹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진정한 마음의 수양을 향해 애쓰지 않고 경전이나 작시에만 몰두하며 과거시험을 통해 신분계급의 상승을 꿈꾸는 유가의 많은 가난한 선비들을 향해 한산은 통렬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들의 고상한 척 주고 받는 글귀는 개가 좋아할 떡에 새겨주면 그 떡마저도 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世有聰明士, 세상에 총명한 선비들 있어,
勤苦探幽文. 심오한 문헌 탐구하느라 몹시 애쓴다네.
三端自孤立, 三端은 스스로 특출나고,
六藝越諸君. 六藝는 모든 이들을 능가했다네.
神氣卓然異, 신비로운 기운은 우뚝 뛰어나고,
精彩超衆群. 정묘한 광채는 군중에게서 빼어났다네.
不識箇中意, 그러나 이 안의 참된 뜻 알지 못하니,
逐境亂紛紛. 바깥 경계 쫓아 어지러이 분분하다네.⁴²⁾

유가의 문사들에 대해 화자가 던지는 비판적 화두가 전편을 지배하고 있다. 세상에 나름 총명하다고 인정받는 문사들은 탐구하는 문헌도 평범하지가 않고 심오하다. ‘三端’ 즉 ‘붓끝’,

41) 「寒山詩-099」.

42) 「寒山詩-105」.

‘칼끝’, ‘혀끝’은 특출하고,⁴³⁾ ‘六藝’⁴⁴⁾ 등의 과목은 모든 이들을 능가한다. 그들에게서 배어나오는 신비로운 기운과 정묘한 광채는 못사람들을 압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인간 내면의 참된 진리의 세계를 모르고 있으니, 그것은 바로 불법에서 일컫는 깨달음의 세계이다.⁴⁵⁾ 이러한 깨달음은 뒤로 한 채 바깥 경계로만 이목이 치우쳐 있으니 그들의 심신은 늘 바쁘고 어지럽기만 하다. 화자는 유가 선비들이 지향하는 세계가 인간 내면의 참된 진리와의 추구와는 근본적인 지향점이 다르다고 엄준하게 비판을 가하고 있다.

雍容美少年, 온화하고 의젓한 아름다운 소년,
博覽諸經史. 모든 경전과 역사서를 두루 읽었다네.
盡號曰先生, 다들 선생이라 부르고,
皆稱爲學士. 모두들 학자라고 일컫는다네.
未能得官職, 아직 관직을 얻지 못하고,
不解秉耒耜. 쟁기와 보습도 잡을 줄 모른다네.
冬披破布衫, 겨울에도 헤진 베적삼 걸쳤으니,
蓋是書誤己. 이는 책이 몸을 그르쳤음 일세.⁴⁶⁾

자태가 수려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나이 어린 소년이 유가의 경전과 역사서적을 두루 통독하였다. 사람들은 그를 모두 ‘선생’ 혹은 ‘학자’라 부른다. 작품에 등장하는 소년은 어려서부터 유가의 전형적인 길을 걸어온 인물이다. 이른 나이에 주위로부터 명망과 관심을 받아왔지만 과거에는 급제하지 못한 인물로 그려져 있다. 또한 서책에만 몰두하느라 농사짓는 방법은 알지도 못한다. 집안에 재물도 없어서 차가운 겨울에 몸에는 베적삼밖에는 걸칠 옷이 없다. 시편의 말미에 화자는 경고하고 있다. 농기구 하나도 제대로 다룰 줄 모른 채 세상이 떠받드는 유가의 서책에만 몰두하다가 자신의 몸마저도 망치고 마는 어리석은 유가의 선비들에 대한 엄정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一人好頭肚, 훌륭한 풍채를 지닌 한 사람,
六藝盡皆通. 六藝도 모두 능통했다네.
南見驅歸北, 남에서 보이더니 내달려 북으로 돌아오고,
西逢趨向東. 서에서 만났는데 동으로 내달린다네.
長漂如汎萍, 늘 부평초처럼 떠다니고,
不息似飛蓬. 흩날리는 쭉처럼 쉼이 없네.
問是何等色, 이는 어떤 사람인가 물어보니,
姓貧名曰窮. 성은 ‘빈’이요, 이름은 ‘궁’이라네.⁴⁷⁾

43) “군자가 피해야 할 세 가지 끝이 있으니 ‘문사의 붓끝’, ‘무사의 칼끝’, ‘변사의 혀끝’이 그것이다.(君子避三端, 避文士之筆端, 避武士之鋒端, 避辯士之舌端.)” 『韓詩外傳』卷七. 項楚, 『寒山詩注』, p.283. 원문 재인용, 필자 역.

44) 禮·樂·射·御·書·數의 고대 교육의 여섯 가지 과목을 가리킴.

45) 項楚, 『寒山詩注』, p.283. 참조.

46) 『寒山詩-129』.

47) 『寒山詩-148』.

상기 살펴보았던 두 편의 시를 합쳐 놓은 듯하다.⁴⁸⁾ 훌륭한 풍모에 육예까지 통달한 유가의 선비가 있어 삶의 여유란 찾아볼 수가 없다. 동서남북을 늘 부평초처럼 떠돌고 바람에 흩날리는 쭉과 같다. 그 사람 누군가 궁금하여 물어보니 ‘貧窮’ 즉 가난하여 생활이 몹시 어렵다는 뜻을 가진 단어가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화자는 유가의 식견에 외관까지 갖춘 한 선비가 평생을 동분서주하여 정치없는 삶을 떠돌지만 끝내 남은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다는 상징적인 비유를 통하여 당시 사람들의 겉모습에 치중한 유가적 성향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던지고 있다.

3. 道家적 양상

한산이 청년시기 이후 현실사회에서 유가와 관련된 입신양명의 행동반경을 정리하고 은거해 간 곳은 천태산이다. 천태산은 도교의 기운이 매우 농후한 곳이다. 널리 알려진 많은 道觀과 산이 빚어내는 신비한 도교적 기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절도 도교의 기운을 느끼게 만든다. 한산 또한 오랜 세월 이 곳에 은거하면서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⁴⁹⁾

이러한 삶의 궤적은 그의 사상적 관념에 변화를 가져오고 이는 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그의 시에 드러난 도가적 성향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기로 할 것이다. 분석은 도가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의 성향과 비판적으로 바라볼 때의 성향으로 나누어 진행하고자 한다.⁵⁰⁾

1) 道家에 대한 긍정적 性向

琴書須自隨, 거문고와 책은 모름지기 저절로 따르는 것
 祿位用何爲, 녹봉과 작위에 연연해 무엇 하리오.
 投輦從賢婦, 벼슬자리 내던지며 어진 아내 따르고
 巾車有孝兒, 수레에 휘장을 두르니 효성스런 아이 있다네.

 常念鷓鴣鳥, 늘 생각건대 뱀새도,
 安身在一枝, 몸을 편히 하는 것 한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네.⁵¹⁾

48) 「寒山詩-105」와 「寒山詩-129」를 가리킴.

49) 楊芬霞, 『中唐詩僧研究』, 陝西師範大學博士論文, 2006, p.50. 참조.

50) 본고에서 서술하는 ‘道家’라는 용어는 중국인들의 전통적 관념에서 ‘道教’와 동일시하여 사용하되 틀에 근거하고자 한다. 이 둘의 용어가 개념적으로 이분법화 된 것은 20세기 초 서양철학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다. 윤찬원, 「道家-道教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 『道教文化研究』, 제16집, 2002, p.29. 참조.

51) 「寒山詩-005」.

시의 전체적인 어조가 인위를 배제한 무위자연의 흐름을 따르는 듯하다. 시와 음악과 예를 통해 도를 구축해가는 유가적 세계⁵²⁾와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시의 말미 두 구절 “늘 생각건대 뱀새도, 몸을 편히 하는 것 한 나뭇가지에 불과하다네.”는 『莊子』『逍遙遊』의 내용이다. 堯舜금이 천하를 許由에게 넘겨주려고 할 때 허유가 던진 말 가운데 “뱀새가 깊은 숲에 둥지를 틀고 살아도 나무 한 가지에 불과하며, 두더지가 강물을 마신다 해도 배를 채우는데 불과하다.”⁵³⁾라는 내용이 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번다한 세상의 경영주가 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세계를 즐기며 은일자적인 삶을 살겠다는 도가적 가치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화자도 시에서 유가적 출세로 녹봉과 작위에 연연한 삶 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상사에서 삶의 여유로움을 즐기며 살아가는 도가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

家住綠巖下, 집은 푸른 바위 아래 있고,
庭蕪更不芟. 뜰은 풀 무성하여도 베지를 앓는다네.

.....

山果彌猴摘, 산과실은 원숭이가 따먹고
池魚白鷺銜. 연못의 고기는 백로가 물고 가네.
仙書一兩卷, 선서 한두 권,
樹下讀喃喃. 나무 밑에서 중얼거린다네.⁵⁴⁾

만물을 혼돈상태에 둔 채 귀천의 구별을 하지 않고, 함께 뒤섞이면서도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려는 도가적 속성이 느껴지는 시편이다.⁵⁵⁾ 본인이 거처하는 집은 푸른 바위를 담장으로 하고, 집 앞 뜰의 풀은 자연의 변화에 맡겨둔다. 산의 과일은 원숭이가 취하고 연못의 고기는 새가 물고 가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나무 아래에서 유유자적하게 도가의 ‘仙書’를 읽고 있다. 인위적인 미적추구는 배제하고 만물의 변화와 속성을 그 자체로 추구하는 도가적 경향을 느껴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산이 도가의 서적을 읽고 있는 모습은 다음의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微風吹幽松, 가는 바람 그윽한 소나무에 불어와,
近聽聲愈好. 가까이서 들으니 소리 더욱 좋다네.
下有斑白人, 아래에 반백의 노인 있어,
喃喃讀黃老. 黃老 글을 중얼거리고 있네.
十年歸不得, 십년이 되어도 돌아갈 줄 모르고,
忘却來時道. 들어올 때의 길을 잊어 버렸다네.⁵⁶⁾

52) 子曰“興於詩, 入於禮, 成於樂.”『論語·泰伯篇』.

53) “鷦鷯巢於深林, 不過一枝. 偃鼠飲河, 不過滿腹.”『莊子·逍遙遊』.

54) 『寒山詩-016』.

55) “만물의 변화와 하나가 되어 혼돈은 그 자체로 두며, 귀천의 구별을 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 속에서 참된 순수함을 보전하고, 만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이를 감싸고 있다.(爲其脗合, 置其滑滯, 以隸相尊. …… 參萬歲而一成純. 萬物盡然, 而以是相蘊.)”『莊子·齊物論』.

상기 시편처럼 이 시편에서도 시적화자는 자연의 향취가 그대로 묻어나는 야외의 소나무 아래에서 바람소리 들으며 黃老의 글을 읽고 있다. ‘黃老’는 도가에서 시조라 일컬어지는 黃帝와 老子를 지칭한다. 그런데 글을 읽고 있는 화자의 모습은 반백이며, 그 길로 접어든지 십년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전생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번 생을 힘들게 살아간다고 하면서 다음 생을 위해서 부지런히 불법을 닦을 것을 강조하는⁵⁷⁾ 한산의 내면에는 불도예의 정진과 함께 도가에 대한 긍정적 속성이 함께 자리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快哉混沌身, 좋았어라 혼돈의 몸이여,
不飯復不尿. 먹지도 않고 배뇨도 앓았다네.
遭得誰鑿鑿, 누군가에게 파이고 뚫리고 하여,
因茲立九竅. 이에 아홉 구멍 생겨났네.
朝朝爲衣食, 날마다 입고 먹는 것 헤아리며,
歲歲愁租調. 해마다 세금 내는 것 근심하네.
千箇爭一錢, 천 명이 동전 한 닢에 다투고,
.....58)

『莊子』「應帝王」편에 나오는 우화로 詩想을 삼았다.⁵⁹⁾ 耳目口鼻가 없을 때에는 자유롭던 존재가 하루하루 인간적인 인식을 하면서부터는 의식주를 걱정해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가에 바치는 조세와 금전적 쟁투까지 벌여야 하는 삶의 고통이 인위적 천착의 행위로부터 말미암는다고 화자는 강조하고 있다. 『莊子』의 이 일곱 개의 구멍은 불가에서 일컫는 眼耳鼻舌身意 六根의 작용으로 말미암는 분별심과 유사하다. 이로 인해 참 자아의 모습은 사라지고 거짓 자아에 의해 일생을 구속받으며 살아가는 인간이 어리석음이 시의 전편에 묘사되어있다. 도가의 노장적 색채에 대한 화자의 적극적 수용이 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莊子說送終, 장자는 장사치를 때,
天地爲棺槨. 하늘과 땅을 속 널과 겹 널로 삼는다고 했네.
吾歸此有時, 나는 때가 되면 돌아가거늘,
唯須一番箔. 오직 대발 하나면 충분하리.
死將餵青蠅, 죽어서는 금파리의 먹이가 되고,

56) 『寒山詩-020』.

57) “전생에 너무 어리석어서, 오늘날 깨치지 못하였네. 오늘날 이렇게 구차한 것은, 모두 전생에 지은 것이라네. 금일 또 닦지 않으면, 내생에 다시 되돌아가리라.(生前太愚癡, 不爲今日悟. 今日如許貧, 總是前生作. 今日又不修, 來生還如故.)” 『寒山詩-041』.

58) 『寒山詩-071』.

59) “남해의 임금과 북해의 임금이 때마침 혼돈이라 불리는 임금이 다스리는 중앙의 바다에서 만났는데, 혼돈이 이들을 잘 대해주었다. 南海와 北海 두 바다의 임금은 이 은혜에 보답하고자, 사람에게는 있는데 혼돈에게는 없는 보고 듣고 먹고 숨쉬는 일곱 구멍을 하루에 한 개씩 뚫어주었는데, 7일이 지나자 혼돈은 죽고 말았다(南海之帝爲儵, 北海之帝爲忽, 中央之帝爲混沌. 儵與忽時相與遇於混沌之地, 混沌待之甚善. 儵與忽謀報混沌之德, 曰: 「人皆有七竅以視聽食息, 此獨無有, 嘗試鑿之.」 日鑿一竅, 七日而混沌死.)” 『莊子·應制王』.

吊不勞白鶴. 弔喪에는 백학을 수고롭게 하지 않으리.
 餓著首陽山, 굶주리다 수양산에 다다르면,
 生廉死亦樂. 삶은 청렴하고 죽음 또한 즐거우리.⁶⁰⁾

道家적 성향이 뚜렷한 시이다. 天地를 葬事지내는 棺으로 삼겠다는 莊子の 견해가 구체적으로 차용되고 있다. 莊子는 그의 장례식에 천지 이외에 해와 달은 한쌍의 옥으로, 별은 구슬로, 만물은 선물로 삼는다고 하였다.⁶¹⁾ 한산 역시 이에 견해를 같이하여 죽음은 때가 되면 돌아가는 자연스런 귀결로 간주하니, 그저 ‘대발’ 하나 쓰는 것만으로 장례식은 족하다고 여긴다. 또한 먹거리가 없어도 청렴의 표상이 되면 되고, 죽음에 이르러서도 곤충의 먹이가 되어준다.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자연의 순환구조로 받아들이는 老莊적 생사관을 한산은 보여주고 있다.⁶²⁾

從生不往來, 태어날 때부터 왕래하지 않고,
 至死無仁義. 죽을 때까지 인과 의는 없다네.
 言既有枝葉, 말에 이미 가지와 잎이 생겨남은,
 心懷便險詖. 마음이 음험하고 바르지 못한 때문.
 若其開小道, 만약 작은 도를 펼친다면,
 緣此生大僞. 이로 인해 큰 거짓이 생겨나리라.
⁶³⁾

老子的 사상이 시편에 녹아있다. 노자가 말하는 도는 원래 어느 곳에나 있지 아니함이 없다. “도가 무너졌다고 여길 때 비로소 仁과 義가 생겨났으며”,⁶⁴⁾ “仁과 義가 사라져야 비로소 효심과 자애로움이 회복될 것”⁶⁵⁾이라는 노자의 견해를 한산은 시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인간들의 언사에 수식이 덧붙는 것도 뿌리가 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한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소위 지혜라고 일컫는 것 때문에 노자가 말하는 ‘큰 거짓’이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⁶⁶⁾ 시편의 전체적인 틀이 노자의 사상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60) 『寒山詩-008』

61) “장자가 죽으려 할 때에 제자가 그를 후히 장사지내려 하자, 장자가 ‘나는 천지를 널로 삼고 해와 달을 연벽으로 삼으며, 별을 구슬로 삼고 만물을 부장품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 장례식 도구가 갖추어지지 않은 것이 없는데, 무엇을 여기에 덧붙이려 하는가.’라고 하였다.(莊子將死,弟子欲厚葬之. 莊子曰:「吾以天地爲棺槨, 以日月爲連璧, 星辰爲珠璣, 萬物爲齎送. 吾葬具豈不備邪? 何以加此!」)” 『莊子·列禦寇』.

62)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4. 참조.

63) 『寒山詩-188』.

64) “대도가 무너지니 인의가 생겨나고,..... 국가가 혼란하니 충신이 나타나는 것이다.(大道廢, 有仁義..... 國家昏亂, 有忠臣.)” 『道德經』 18장.

65)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은 효심과 자애로움을 회복할 것이다.(絕仁棄義, 民復孝慈.)” 『道德經』 19장.

66) “지혜가 생겨나니 큰 거짓이 있게 되었다.(智慧出, 有大僞.)” 『道德經』 18장.

手把兩卷書, 손에는 두 권의 책,
 一道將一德. 한 권은 道經 한 권은 德經.
 住不安釜竈, 거처에 솥과 부뚜막 두지 않고,
 行不齋衣械. 다님에 도포자락 갖추지 않네.
 常持智慧劍, 늘 지혜의 검을 가지고,
 擬破煩惱賊. 번뇌의 도적을 없애려 한다네.⁶⁷⁾

한산이 손에 들고 다닌다는 두 권의 책은 老子의 『道德經』을 가리킨다. 상편은 「道經」, 하편은 「德經」으로 이루어져 있다. 스스로 도가철학의 시조인 老子의 사상을 전면 수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자신의 주거지에 취사도구도 별도로 두지 않고 외출을 함에 의복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가고 오고 머무름에 속박이 없는 자유로운 영혼을 표현하는 구절이다. 시편의 말미에 화자가 번뇌의 도적을 베어 없애버리는 도구로 표현한 ‘지혜의 劍’은 불교에서 생사번뇌의 굴레를 베어 없애버리는 상징적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⁶⁸⁾ 이 시를 통해서 보면 도가와 불가의 두 속성이 한산의 내면에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踐草成三徑, 풀을 밟다보니 오솔길 되고
 瞻雲作四隣. 구름을 바라다보니 이웃이 되네.
 助歌聲有鳥, 노래가락 돋우면 새 찾아오는데
 問法語無人. 법어를 물으려니 사람이 없네.
 今日娑婆樹, 아! 오늘 이 사바의 나무는
 幾年爲一春. 몇 년을 한 봄으로 삼으려 하나.⁶⁹⁾

숲 속 오솔길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하늘 위 구름이 이웃이 되는 장면에서 인위적 행위가 제거된 노장적 세계관의 일 단면을 엿볼 수 있다.⁷⁰⁾ 주변의 자연경계가 절로 그의 이웃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노래가락에 새는 응해주는데 함께 법문을 논할 사람은 찾을 수가 없다.

절미에서 말하는 사바의 나무에 대해 『莊子』는 ‘大椿’이라는 나무를 등장시켜 팔천년을 봄으로 팔천년을 가을로 삼아 살아간다고 하였다.⁷¹⁾ 여기에서 우리는 노장사상과 불교사상을 접목시켜나가는 한산의 정신세계를 엿볼 수 있다. 이는 찰나의 한 순간이 영겁으로 이어지는 불가의 색즉시공을 표현한 “空”의 사상이다. 사바의 이 나무 또한 찰나적 영상에 불과하며

67) 『寒山詩-156』.

68) “인내의 갑옷으로 몸을 장엄하게 하고, 지혜의 검을 가지고 마귀들의 험한 길에서 나를 구제하여 온갖 어려움을 벗어나게 하소서.(忍鎧莊嚴身, 執持智慧劍, 於魔嶮惡道, 濟我免衆難.)” 『華嚴經』卷45 : 頂楚, 『寒山詩注』, p.393. 원문 재인용, 필자 역.

69) 『寒山詩-004』.

70) 莊子は 길은 사람이 다님으로 해서 생겨난다고 하였다. “道行之而成.” 『莊子·齊物論』.

71) “上古有大椿者 以八千歲爲春 以八千歲爲秋.” 『莊子·逍遙遊』: 여기에서 등장하는 ‘大椿’이라는 나무는 「逍遙遊」 앞 구절의 오백년을 봄으로 오백년을 가을로 살아가는 초나라의 ‘冥靈’이라는 거북이와 더불어 짧은 순간적 삶을 살아가는 미미한 생물들[朝菌, 蟪蛄]과 대비시켜 놓은 것이다.

자연과의 합일은 노장적 사상이다. 한산은 여기에서 ‘娑婆’라는 불가적 용어의 인간세계를 전면에서 내세우면서도 그 내면은 소요자적하며 무위의 삶을 살아가는 노장적 세계관을 함께 그려내고 있다.

2) 道家에 대한 비판적 性向

白鶴銜苦桃, 흰 학이 쓴 복숭아 입에 물고,
千里作一息, 천리를 가서야 한번 쉰다네.
欲往蓬萊山, 봉래산으로 날아가려고,
將此充糧食, 이것으로 양식을 삼았다네.
未達毛摧落, 도달하기도 전에 깃털은 꺾이고 빠지며,
離群心慘惻, 무리에서 떨어져 마음은 몹시 슬펐다.
卻歸舊來巢, 물러나 다시 옛 둥지로 되돌아오니,
妻子不相識, 아내와 자식들도 알아보지 못한다네.⁷²⁾

‘봉래산’은 전설로 전해오는 바다 가운데 신선이 거처하는 산으로 알려져 있다.⁷³⁾ 흰 학이 쓴 복숭아 하나 입에 물고 천리를 날아가서야 한번 쉬어간다는 것은 신선이 되는 길은 그만큼 힘들고 요원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말이다.⁷⁴⁾ 그러나 목표로 삼던 봉래산은 도달하기도 전에 몸은 지쳐버리고, 함께 하던 벗들도 사라져버려 심신이 피폐해져 버렸다. 결국 신선의 수업도 포기한 채 옛 둥지로 되돌아 왔으나 처자식마저 알아보지 못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이 시편에서 화자는 도가의 수련을 통해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실체도 없는 환상에 빠져서 심신을 망쳐버리고 궁극으로는 자신이 돌아갈 곳도 없는 극한적 단계에 다다를 수 있는 그릇된 방향으로의 수련에 대해 비판을 가하고 있다.

山客心悄悄, 산 나그네 근심걱정에 싸여,
常嗟歲序遷, 늘 해 바뀌어 감을 탄식하네.
辛勤采芝朮, 애써 영지와 백출 부지런히 캐지만,
披斥詎成仙, 애써 뒤진다고 어찌 신선이 되겠는가.
庭廓雲初卷, 구름이 막 걷히니 뜰은 넓어지고,
林明月正圓, 달이 막 둥그니 숲이 밝아지네.
.....⁷⁵⁾

‘영지’와 ‘백출’은 도가의 약용 식물로, 이를 복용하면 수명을 연장하고 신선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⁷⁶⁾ 산에 거처하면서 도가의 수련으로 신선수업 한다고 하지만 해마다 뜻대로

72) 『寒山詩-039』.

73) 蓬萊山은 方丈山, 瀛洲山과 함께 三神山으로 불린다. 項楚, 『寒山詩注』, p.109. 참조.

74) 項楚, 『寒山詩注』, p.109. 참조.

75) 『寒山詩-068』.

되지 않으니 근심걱정에 탄식만 절로 나온다. 이에 ‘영지’와 ‘백출’ 같은 도가의 약용 식물까지도 부지런히 캐서 복용 해 보지만 신선이 될 리 없다. 환상 속의 신선의 존재와 같은 망령에 빠져서 자신의 일생을 허비하고 있는 존재에 대해 화자는 비판하고 있다. 구름이 걷히고 난 뒤 뜰이 환히 넓어지고, 달이 둥글게 떠오르고 나면 숲이 밝아지는 것처럼 거짓 망상을 벗어버리고 바른 길을 향해서 나아갈 것을 충고하고 있다.

有人畏白首, 어떤 사람 머리 희어짐 두려워하여,
不肯捨朱紱. 붉은 인끈 놓으려 하지 않는다네.
採藥空求仙, 약을 구하여 부질없이 신선되려고,
根苗亂挑掘. 뿌리와 싹까지 마구 파내어 버리네.
數年無效驗, 수년간에 효험이 나타나지 않자,
癡意嗔佛鬱. 어리석은 마음에 성나고 화만 낸다네.
獵師披袈裟, 사냥꾼이 스님의 가사를 걸치려 하니,
元非汝使物. 원래부터 너의 물건이 아니었느니라.⁷⁷⁾

‘붉은 인끈’은 벼슬자리를 의미한다.⁷⁸⁾ 물질적·富有에 사회적 지위를 획득한 사람들은 더욱 관직을 버리기 싫어한다. 그들은 늙는 것조차 두려워하여 직위와 재산을 동원하여 신선이 되어보려고 산의 약초를 뿌리마저도 다 캐어간다. 하지만 장생불로하는 신선이 될 징후가 보이지 않자 초조한 마음에 화만 치밀어 오른다. 시편의 말미에 화자는 경고하고 있다. 사냥꾼이 스님의 가사를 걸친다고 스님이 될 수가 없듯이 이는 본래 어리석은 인간의 몫이 아니라고, 출세의 욕망과 함께 도가의 신선사상에 그릇되게 빠져드는 인간의 욕망에 대해 화자는 준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昨到雲霞觀, 어제 운하관에 이르러,
忽見仙尊士. 문득 도사를 보았다.
.....
余問神仙術, 내가 신선이 되는 방책을 물으니,
.....
謂言靈無上, “신령하여 그 위는 없으며,
妙藥必神秘. 묘약은 반드시 신비하다.
守死待鶴來, 죽을 때까지 학이 오기를 기다리고,
皆道乘魚去. 고기를 타고 떠난다.” 라고들 말한다.

76) “영지는 수명을 늘이고, 신선이 먹는다.(芝草延年, 仙者所食)” 『論衡·驗符篇』.

“남양문씨 문중에 그 선조가 漢末에 大亂을 만나 산으로 도망가다가 기아에 굶주려 죽으려 하였다. 한 사람이 그에게 백출을 먹으라고 시켜서 마침내 굶주림에서 벗어났다. 수십 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니, 안색은 더욱 젊어지고 힘은 세어졌다.(南陽文氏, 說其先祖漢末大亂, 逃去山中, 飢困欲死. 有一人教之食朮, 遂不能飢. 數十年乃來還鄉里, 顏色更少, 氣力騰故.)” 『抱朴子內篇·仙藥』: 項楚, 『寒山詩注』, p.188. 원문 재인용, 필자 역.

77) 『寒山詩-157』.

78) 고대에 관직이 있는 사람들은 붉은 색의 실이 달려있는 인장을 차고 다녔다. 項楚, 『寒山詩注』, p.394.

余乃返窮之, 내가 돌아와 이를 궁구해보고,
推尋勿道理. 규명해보아도 도리에 맞지 않았다.
.....
饒你得仙人, 설령 그대 신선이 된다하여도,
恰似守屍鬼. 주검을 지키는 귀신과 다름없으리.
.....
莫學黃巾公, 황건공의 도술 배워서,
握愚自守擬. 스스로 어리석음에 빠지려하지 말아라.⁷⁹⁾

화자가 도교사원인 ‘운하관’에 가서 도사에게 신선이 되는 방법을 묻자, 들려주는 대답이 “신선들은 신령하며, 그들이 복용하는 약은 신비스럽다.”라고 한다. 또한 그들은 “학이 오기를 기다리며, 물고기를 타고 떠난다.”라고 하였다.⁸⁰⁾ 화자는 되돌아 와서 그들이 들려준 신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궁구해보았다. 그러나 이는 실체가 없으며 도리에 맞지 않다고 여겼다. 이에 화자는 사람들에게 도가의 ‘신선’이라는 존재에 대해 궁극적인 비판을 가한다. 설령 도가의 방법을 익혀 신선이 될지라도 이는 죽은 시체 곁을 떠나지 못하는 귀신과 다름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 시편의 마지막 결론에 이르러는 도사들의 도술에 미혹되어 한평생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더욱 준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常聞漢武帝, 일찍이 들으니 漢武帝부터,
爰及秦始皇. 秦始皇에 이르기까지.
俱好神仙術, 모두 신선술을 좋아하여,
延年竟不長. 수명을 늘이려 하였으나 끝내 못하였다네.
金臺既摧折, ‘금대’는 무너졌고,
沙丘遂滅亡. ‘사구’는 마침내 사라져 버렸다.
茂陵與驪嶽, ‘무릉’과 ‘여악’에는,
今日草茫茫. 오늘날 잡초만 우거졌어라.⁸¹⁾

漢武帝와 秦始皇은 모두 도교의 불로장생과 관계되는 신선술을 무척 신봉하던 사람들이다.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수명을 늘이려 하였으나 끝내 이루지 못하였다. ‘금대’는 한무제가 신선을 만나고 싶어 지은 누대이며, ‘사구’는 진시황이 숨을 거둔 곳이다. 지금 한무제 능묘인 ‘무릉’과 진시황의 능묘가 있는 ‘여악’ 그곳에는 잡초만 우거져 있다.⁸²⁾ 역대 제왕 중에서도 불로장생을 꿈꾸며 도가의 신선술을 가장 신봉하던 두 임금마저도 그들의 무덤엔 잡초만 무성하다는 시편 말미의 결론을 통하여 화자는 이루지 못할 환상을 그리는 도가적 방편에 대한 꿈에서 깨어날 것을 독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79) 『寒山詩-248』.

80) 이는 신선들이 학과 물고기를 부려서 타고 다닌다는 설화에 기인한 것이다. 項楚, 『寒山詩注』, pp.6 52-653. 참조.

81) 『寒山詩-274』.

82) 項楚, 『寒山詩注』, p.716. 참조.

4. 나가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산은 시에서 자신을 佛法에 귀의한 사람이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주고 있는 사상적 관념은 비교적 복잡하게 나타나고 있다. 불교 이외에도 유가인 것 같으면서도 유가가 아닌 것 같고, 도가인 것 같으면서도 도가가 아닌 것 같은 면이 곳곳에 드러나 보인다.⁸³⁾

유가의 기본 이념은 修身齊家治國平天下 즉 ‘修身’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천하를 화평하게 하는데 있다. 도가는 세상에서의 도피적 세계관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인간을 인위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있다.

한산 역시 젊은 시절 당대의 시대적 경향에 따라 文武를 두루 익히며 유가적 훈도를 받아서 과거에 수차례 응시를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의 시편을 보면 이러한 儒學 공부에의 영향이 드러나 보인다.

가령, 「寒山詩-103」에서는 『論語』의 「顏淵」, 「公冶長」, 「述而」, 「衛靈公」의 네 편을 인용하여 경전 속의 글귀를 그대로 가져오거나 혹은 그 내용을 시의 주제로 삼았다. 「寒山詩-146」에서는 하늘이 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書經』의 교훈과, 유교 윤리의 핵심적 가치인 ‘孝’를 다룬 『孝經』 「喪親章」을 결미의 주제로 삼았다. 「寒山詩-149」는 『論語·子張』편의 벗과의 사귄과 관련된 내용을 인용하여 시의 전체 줄거리 및 제재로 삼았다. 「寒山詩-225」는 『書經』에 나오는 유교 정치사상의 핵심인 민본사상을 “나라는 백성을 근본으로 삼는다.”라는 시 구절로 바꾸어 전체 내용을 전개하였다. 「寒山詩-230」에서는 『禮記』의 「儒行篇」에 대해 언급하고, 「寒山詩-030」에서는 『詩經』의 구절을 거의 유사하게 인용하기도 하였다.

이상의 시편들로 보면 한산이 과연 詩僧에 가까운 행적과 내용을 남긴 사람이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유가에 대해 긍정적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유가에 대해 비판적 성향을 드러낸 시편들도 살펴볼 수 있었다.

가령, 「寒山詩-080」에서는 역사 및 유교경전을 부지런히 탐독하는 사람들이 말년에 이르러도 ‘백정’신세를 면치 못하는 현상을 통해 유가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었다. 「寒山詩-099」에서는 과거 급제에 뜻을 이루지 못하고 추위와 굶주림에 좌절한 유가 선비들의 실상을 신랄하게 묘사하고 있다. 「寒山詩-105」에서는 ‘三端’은 특출하고 ‘六藝’ 등의 과목은 못 사람들을 압도하는 총명한 유가의 문사들이 자기 내면의 진리를 향한 추구는 외면하고 바깥 경계에만 귀 기울임에 대해 비판을 가하였다. 「寒山詩-129」에서는 유가 경전과 역사서적을 통독하여 ‘선생’ 혹은 ‘학자’라고 칭송받던 인물이 관직에도 오르지 못하고, 농기구도 다루지 못해 집안과 자신을 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비판하고 있다. 「寒山詩-148」에서는 유가의 식견에 외관까지 갖춘 한 선비가 평생을 동분서주하여 정처없는 삶을 떠돌지만 끝내 남은 것이라고는 ‘가난’밖에 없다는 상징적인 비유로 유가적 성향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유가의 사상과 경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을 하거나 혹은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은 한산

83) 羅時進, 『唐詩演進論』, 江蘇古籍出版社, 2001, p.121. 참조.

이지만 유가의 공부를 통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비판을 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장기 동안 자신의 몸에 뱀 유가적 혼도가 한산에게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선택받지 못한 관직사회로의 좌절도 유가를 바라보는 그의 비판적 성향에 일부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실적 유가에서의 장벽은 한산에게 出仕로의 미련을 버리고 은둔생활로 들어가게 만들었으며, 그곳이 바로 천태산이다. 천태산은 많은 道觀과 신비한 도교적 기운이 서린 곳이다. 이러한 처소에서의 오랜 은둔생활은 그에게 佛家뿐만 아니라 道家에 대해서도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가령, 『寒山詩-005』에서는 한 나뭇가지에 몸을 편히 쉬는 뱀새의 이야기가 실린 『莊子』『逍遙遊』를 통해 자신의 내면세계를 즐기며 여유로운 삶을 영위하는 도가적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寒山詩-016』에서는 나무 아래에서 ‘仙書’를 읽으며 인위적 행위는 배제한 채 만물이 순환하는 자연스런 흐름을 즐기는 도가적 속성을 보여주고 있다. 『寒山詩-020』에서는 머리가 반백이 된 화자가 소나무 아래에서 黃帝와 老子의 글을 중얼거리며 십년이 되어도 돌아갈 줄 모른다는 내용을 통해 도가의 세계에 흠뻑 빠져든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寒山詩-071』에서는 『莊子』『應帝王』에 나오는 혼돈의 우화를 詩想으로 삼아서 일생을 구속받으며 한 뉘 동전에도 암투를 벌이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들의 삶을 그려내고 있다. 『寒山詩-008』에서는 본인의 장례식에 天地를 葬事지내는 棺으로 삼고 죽어서는 곤충의 먹이가 되겠다는 莊子의 이야기를 통해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고 자연의 순환구조로 받아들이는 老莊적 생사관을 보여주고 있다. 『寒山詩-188』에서는 ‘仁’과 ‘義’와 같은 큰 거짓이 사라져야 효심과 자애로움이 생겨날 것이라는 老子의 사상을 여과없이 받아들이고 있다. 『寒山詩-156』에서는 자신의 거처에 취사도구도 없고 출입함에 의복도 개의치 않는 한산이 손에는 늘 老子의 『道德經』을 들고 다닌다는 구절을 통하여 도가의 사상적 이념을 전면 수용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寒山詩-004』에서는 숲 속 오솔길과 하늘 위 구름을 벗으로 하며 『莊子』의 ‘大椿’이라는 나무를 통해 소요자적하며 무위의 삶을 살아가는 노장적 세계관을 그리고 있다.

도가에 대한 이러한 긍정적인 성향과는 달리 도가의 사상을 수용하며 종교화의 길로 나아간 도교화된 모습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적 견해를 던지고 있다.

가령, 『寒山詩-039』에서는 ‘흰 학’, ‘복숭아’, ‘봉래산’ 등의 도가적 용어를 시에 차용하며 실체도 없는 신선이 되려는 환상에 빠져서 심신을 망쳐버리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寒山詩-068』에서는 ‘영지’와 ‘백출’ 등의 도가에서 일컫는 약용 식물로 수명을 연장하며 신선이 되려고 일생을 허비하는 인간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寒山詩-157』에서는 자신의 직위와 재산을 동원하여 산의 약초를 뿌리마져 캐어 보지만 신선이 되지는 못하고 도리어 초조한 마음에 화만 내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욕망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寒山詩-248』에서는 도교사원인 ‘운하관’에서 화자에게 들려주는 도사들의 신선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도사들의 도술에 미혹되어 한평생 어리석음에 빠져 사는 존재가 되지 말라고 준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寒山詩-274』에서는 불로장생과 관계되는 신선술을 무척 신봉하던 이들인 漢武帝와 秦始皇을 통해 인간의 최고 지존인 역대 황제마저도 불로장생은 이루지 못하고 그들의 무덤에는 잡초만 무성하다는 이야기를 통해 이루지 못할 도가적 환상

에서 깨어나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편 「寒山詩-066」에서는 孔子와 莊子의 그릇된 설교의 방편으로는 진정한 도에 도달할 수 없음을 설파하여 유가와 도가에 대해 한 시편에서 동시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⁸⁴⁾

이상을 통해서 한산은 자신의 시 곳곳에서 현세에 불법을 닦아 번뇌를 없애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것을 독자들에게 주문하고 있지만, 그의 이면에는 이전에 자신이 걸어왔던 유가의 그림자와 당시의 시대상이 보여주는 도가의 존재가 분명히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고찰할 수 있었다. 특히 도가에 대한 긍정적인 성향은 불가와 함께 한산의 내면에 깊숙이 공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비록 한산이 추구하는 불가의 세계가 자신의 해탈로부터 온 세상을 구제하는 행위이지는 하나, 세상의 존재 자체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에게 유가와 도가에서 걸어왔던 발자취는 그의 詩作의 한 부분으로 뚜렷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한산과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正史에 거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사상적 변천을 생평에 따른 이동과 함께 적시할 수 없음이 아쉬움으로 남는다.⁸⁵⁾

【참고문헌】

『論語』

『孟子』

『詩經』

『書經』

『道德經』

『莊子』

陳耀東, 『寒山詩集板本研究』, 北京:世界知識出版社, 2007.

何善蒙, 『隱逸詩人-寒山傳』, 浙江人民出版社, 2006.

羅時進, 『唐詩演進論』, 江蘇古籍出版社, 2001.

歐陽慧娟, 『寒山詩歌研究』, 湖南大學碩士論文, 2007.

孫昌武, 『禪思與詩情』, 北京:中華書局, 1997.

項 楚, 『寒山詩注』, 北京:中華書局, 2000.

蕭華榮, 『中國詩學思想史』, 華東師範大學出版社, 1996.

楊芬霞, 『中唐詩僧研究』, 陝西師範大學博士論文, 2006.

崔小敬, 『寒山及其詩研究』, 復旦大學博士論文, 2004.

윤찬원, 「道家-道敎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 『道敎文化研究』, 제16집, 2002.

정원호,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中國學』, 제52집, 2015.

84) 침묵만 지키고 길이 말이 없으면, 뒷사람은 무엇으로 말을 전하리오. 숲속에 숨어살기만 하면, 지혜의 경지는 어디서 나오리오. 야위어 파리함은 견고한 지킴이 아니리니, 바람과 서리는 요사스런 질병을 만든다네. 흙소로 자갈밭을 경작해보아도, 벼를 수확할 날 오지 않는다네.(默默永無言, 後生何所述. 隱居在林藪, 智境何由出. 枯槁非堅衛, 風霜成天疾. 土牛耕石田, 벼를 수확할 날 오지 않는다네.)

85) 拙稿, 「寒山詩에 나타난 求道の 과정 고찰」, p.123에 소개되어 있음.

【논문초록】

키워드	중문	寒山詩, 儒家, 道家, 佛法, 佛徒		
Key Words	영문	Poetry of <i>Hanshan</i> , Confucianism, Taoism, Buddhist Dharma, Buddhist		
<div><div>A Study on Aspects of Confucianism and Taoism Shown in the <i>Hanshan</i> Poetry</div><div>Jung, Won-Ho</div></div> <p>This study is considerations of the Confucianist and Taoist aspects in the poetry written by <i>Hanshan</i> from the Chinese Tang Dynasty. To inquire into the quintessence of the poetry of <i>Hanshan</i>, it is reckoned that we must go through the process of reviewing the influences of Confucianism and Taoism on his poetry other than the Buddhist inclinations. For the purpose of this, the Part II of this study intends to inquire about the Confucian aspects of the poetry of <i>Hanshan</i>. In the first place, the first chapter plans to carry out studies oriented to the poetry with positive propensities of Confucianism. In the second chapter, the poetry of <i>Hanshan</i> with critical dispositions of Confucianism will be studied. The Part III intends to look into the Taoist facets of the poetry of <i>Hanshan</i>. The first chapter will carry out studies oriented to the poetry with positive inclinations of Taoism. The second chapter will focus on the poetry with critical properties of Taoism.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i>Hanshan</i>, through his collection of poems, encourages his readers to discipline them with Buddhist Dharma and remove suffering (Dukkha) to move forward the path to true Buddhists. Nevertheless, on the other side of this, we come to understand that the dispositions of Confucianism and Taoism coexist in <i>Hanshan</i>. This manifests that his works are influenced both from the Confucian traditional education offered to <i>Hanshan</i> in his youth and the Taoist atmosphere brought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of the forest where he lived in retirement.</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정원호 / 鄭元皓 / Jung, Won-Ho		
	소 속	동의과학대학교 국제관광계열 관광중국어전공		
	Em@il	whjung@dit.ac.kr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4월 30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